

쓰보이(坪井)·다이후쿠(大福) 유적 [가시하라시 도키와초 쓰보이·사쿠라이시 다이후쿠]

가시하라시 북동부의 도키와초(常盤町)·히가시타케다초(東竹田町)에서 사쿠라이시(桜井市) 서부의 다이후쿠(大福)까지 펼쳐지는 조몬시대 만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의 유구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다. 나라 분지 동남부의 도노미네(多武峰) 봉우리에서 나라 분지로 흘러드는 데라카와(寺川) 강 및 요네카와(米川) 강 사이에 끼어있는 표고 62~65m의 복합선상지 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쓰보이·다이후쿠 유적」이라는 명칭은 가시하라시 도키와초 쓰보이에 있는 「쓰보이 유적」과 사쿠라이시 다이후쿠에 있는 「다이후쿠 유적」의 조사가 진전되면서 일련의 유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양 유적을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단, 쓰보이유적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다이후쿠 유적의 일부(다이후쿠 초등학교 지구)는 현재도 쓰보이·다이후쿠유적과는 구별해서 「다이후쿠 유적」으로 쓰고 있다.

주요 유구는 조몬시대 만기의 토기관묘, 야요이시대 전기에서 중기 말의 집락을 둘러싼 환호(環濠), 토갱(土坑), 주혈(柱穴), 목관묘, 토기관묘, 야요이시대 후기의 환호, 토갱, 방형주구묘, 목관묘 등이 있다. 야요이시대 후기의 방형주구묘는 환호의 바깥쪽에 만들어진 점으로 보아 집락과 묘역을 분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토품은 조몬시대 만기의 차광기(遮光器) 토우, 야요이시대 중기의 새 장식을 한 인물(샤먼)을 그린 그림(繪画)토기나 옷칠을 한 목제 손잡이〔把頭〕, 고분시대 전기의 목제 갑옷〔短甲〕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자료로는 야요이시대 후기의 긴 목 향아리에 개 한 마리 분의 뼈가 납골된 것을 들 수 있다. 살이나 뼈가 붙은 상태에서는 향아리 안에 넣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 번 매장한 후에 뼈만 파내서 향아리 안에 담아 다시 매장한 재장묘(再葬墓)로 생각된다.

본 유적의 주변에는 남쪽에 오스미(大隅)유적, 남동쪽에 다이후쿠 유적이 있다. 오스미 유적은 쓰보이·다이후쿠 유적에 인접하고 있어서 일련의 유적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이후쿠 유적은 돌선꼭지(突線紐)식 청동방울(銅鐸)이 발굴·조사된 것으로 유명한데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의 방형주구묘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쓰보이·다이후쿠 유적의 묘역으로 상정되고 있다.

쓰보이·다이후쿠유적은 야요이시대 중기에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후기가 되면 환호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유구 수가 감소해 간다. 반면 인접한 다이후쿠 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에 유구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쓰보이·다이후쿠 유적의 사람들이 환호의 바깥쪽, 결국 집락 바깥쪽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집락을 형성했다고 상정된다. 쓰보이·다이후쿠 유적과 다이후쿠 유적은 야요이 시대 중기의 집락과 묘역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야요이시대 후기에 서로 긴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야요이시대 집락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모델케이스라고 하겠다.